

히노시마 섬의 석탑군

와카마쓰 섬에 인접한 히노시마 섬 남쪽 끝에 위치한 불모지인 부리 모양의 사취에 크고 작은 70여 개의 석탑이 산재해 있습니다. 한때는 숲으로 덮여 있었던 이곳은 중세의 상인들과 뱃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묻고 바다에서 조난당한 동료들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으며 자신들도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을 각오하고 공양탑을 남긴 외딴 묘지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탑은 1300년대 후반에서 1400년대에 걸쳐 건립되었습니다. 당시 고토의 선원들은 한반도와 중국 연안에서 교역과 해적 행위를 활발히 벌였으며, 고토의 귀족들과 부유층에게 이국 정취가 물씬 풍기는 물건들을 판매했습니다.

고토에서 판매하기 위한 물건들은 일본해(한국명 동해) 쪽의 와카사 만과 현재의 오사카 및 고베 부근에서 하역되었습니다. 히노시마 섬에 있는 대부분의 석탑은 이 지역에만 있는 석재로 만들었는데, 고토로 돌아가는 무역선에 실어서 히노시마 섬으로 운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석탑의 형상과 구조로 볼 때 현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본토에서 입수한 탑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태 중 하나인 오륜탑은 불교에서 우주를 구성하는 5대 원소를 상징하는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 탑입니다. 사각형은 땅, 원 모양은 물, 삼각형은 불, 반원 모양은 바람, 여의주를 본뜬 공 모양은 하늘을 나타내며 각각의 원소에 대응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탑 위쪽에 계단 모양의 피라미드를 올리고 그 위에 뾰족한 장식을 올린 '호쿄인토'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